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이종윤

Lee, Jong Yun, Ph. D., D.D., D. D.

박노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Tel.558-1106 / Fax.558-2107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http://seoulchurch.or.kr>

“진정한 감사의 결과” (Result of a True Thanksgiving)

■ 요한복음 11:32-44

우리는 일이 잘 안 풀리면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평을 사소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감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시는 가장 빈번한 명령이 “감사하라”입니다. 사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행복의 근원은 감사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습 가운데 감사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가장 큰 위로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어 장사된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는 놀랍게도 감사의 기도였습니다(요11:41-42). 추수감사절을 한 주 앞둔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가 죽어 장사되어 있는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드린 감사의 기도를 통해 진정한 의미로서의 감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1. 진정한 감사는 사제를 초월해 드리는 감사입니다(요11:41)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항상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나간 시간 속에 은혜를 배워했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과거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 현재로 이어집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요11:42상)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 말을 듣고 계신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나 하나니(요11:40) 여기에서 “만약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은 그 사제가 미래행입니다.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늘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예수님의 감사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내가 먼저 보고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순서가 물려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감사 가운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제가 다 들어가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셨던 온전한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 진정한 감사는 고난 중에 드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요11:33, 35-36, 38)

나사로는 예수님의 매우 친한 친구였습니다.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절절한 사랑이 본문에는 그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고 예수님께서 우셨고, 다시 반복적으로 그 비통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백합니다. “보라!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런 눈물과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서 주님이 그 일을 열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는 깊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인도하심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며 진정한 감사입니다.

3. 진정한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요11:43-44)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마치고 난 후 죽은 지 3일이 지난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진정한 감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받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그 감사를 받는 이의 마음에 이상한 감동을 줍니다.

맺는 말

추수감사절입니다. 자나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하길 원합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이제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상황을 초월한 믿음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경험하여 더욱 기쁘고 의미 있는 삶과 가정을 영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난주 박노철 목사 설교요약)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II층
주 일 예 배	I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II,III,IV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II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III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II,III,IV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II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I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년부	I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702호	
	II 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II 부 (40대)	오전10시		301호
	III 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III 부 (50대)	오전10시		401호
유아부(13개월-4세)			IV 부 (60대)		오전10시		301호		
유치부(5세-7세)					V 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유년부	오전 10시		701호	예바다부	I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II 부	오후2시		603호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새가족부	I 부	오전10시		602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II 부	오후12시40분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III 부	오후3시20분			
대학부 토요일집회	오후 4시		5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청년1,2부 토요일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802호	소요리문답 I · II 부		오전10시, 12시40분		801호601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신앙강좌 I · II 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 (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부 목 사 한상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황광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혜영 영어목회담당목사 Steven Martinolich
 교육 목사 안규현 김안성 이종진 교육전도사 김은숙 전도담당전도사 배경애 협동목사 감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현홍
 선교사 강아름·주하나, 이사라, 권요셉·조예스터, 김모세·이하나(동아시아),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페로토바로이, 조남해, 박진영·김마성(말라게시), 이재율·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국(인도), 정상진·홍성일
 (필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라게시), 손신일·만매라(체코), 이재훈·박재현(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해(말라위),
 김영호·서광정(러시아), 김인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평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왕모 추수회, 노신애, 이금순, 김병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이선희(벨렌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교회를 통해 받은 영적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한 해 동안 물 붓듯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보이는 은혜도 크고 놀라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축복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하신 말씀은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구원의 은혜도 감사해야겠지만 서울교회가 받은 은혜를 더욱 감사합니다.

반손을 들고 20년 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엎드려 울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교회를 주셨습니다. 논현동 6층 마루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긍휼을 구했고 눈물을 뿌리면서 교회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더니 반포동 교회를 허락하시고 마침내 대치동에 서울교회의 뿌리를 굳건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로 감사할 것이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수 십 년 동안에도 이루기 어려운 일들을 20년 짧은 세월동안에 우리교회를 통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직은 미진하고 온전치 않으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엇으로 기뻐하며 우리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어찌 다 감당할까요?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을 슬퍼하고만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신 승리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는 땅 속에 묻힌 과거에 집착하기보다는 눈앞에 전개되는 새 세계의 손짓을 바라보면서 한숨 대신 영광의 찬송을 불러야 하고 실의와 좌절대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개척자의 환희와 영광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건국공신이나 개선장군처럼 착각하고 논공행상을 바라는 이가 있듯이 우리 중에 혹이라도 특대를 받기를 좋아하며 스스로 감사해야 할 감사보다 자신은 천대를 받고 있다고 원망하며 뒤로 물러가 있는 이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성군 다윗은 국토를 확장하고 국위를 사해에 선양하며 여호와와 이름의 영광을 크게 드러냈지만 오히려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럼에도 후대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빛진 자로서 이 복음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을 우리 하나님께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되었다고 불평하는 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므로 모든 일을 축복으로 변화시켜야 하고 모든 날들을 찬송의 날들로 만들어야 하며 내가 서있는 모든 곳을 천국화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의 감사절에는 우리가 받은 작은 축복이라도 감사해야 하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별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까지도 감사하는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1부 : 교회실립 20주년 및 위임감사예배-

오후 5시 · 인도: 손훈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서명철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황 광 목사	김대호 장로
III	오후 2시	박광일 목사	윤봉준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르름 Call to Worship	... 시 147:1,7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3 부 ... 10(감사절 2)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587(306) ...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암 9:11-15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헌금, 추수감사헌금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아름다운 다윗의 장막" ... (Beautiful Tent of David)	박노철 목사	
성찬식 Holy Communion		집 레 자	
* 찬 송 Hymn	 210(245)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인 도 자
* 찬 송	 208(246)	다 함 께
성 경	 민 11:4-15, 사 40:11	이복규 장로
찬 양		홍승철 목사
설 교	 "목자같이 인도하시리라" ...	시온 찬양대
기 도		설 교 자
* 찬 송	 570(453)	설 교 자
* 주기도		다 함 께

-2부 : 위임 예식-

집례: 위임국장 최성욱 목사

· 소개: 이태종 목사 · 권면: 이수중/권영평 목사
· 축사: 손인웅 목사 · 축도: 이종운 공로(원로)목사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 · 설교: 황 광 목사	
기 도	 I부: 이인선 권사, II부: 정정화 권사	
성 경	 골 1:24-29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내게 주신 직분(경륜)"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분당 피아니스트: 홍해란 · 김양언
설 교 박노철, 유문건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분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열렸다 하늘 문이	박정선	유태왕	차주연	조현정	윤주일
II부	할렐루야	열렸다 하늘 문이	박정선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언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열렸다 하늘 문이	박정선	류충기	강민정1	양경실	윤종현1
찬양예배	시 온	Gloria	Giacomo Puccini	백경화	김진형	서유진	
영어예배	예루살렘 (추수감사절)						
수요 I부	호 산 나	오소서 빛되신 주	김도수	서희숙	김윤지2	홍해란	
수요 II부	시 온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H. W. Parker	백경화	김진형	서유진	

(헌금송)

I부	고 등 부	주를 찬양하리라	Cindy Berry	한원숙		박승기	
II부	그래스랜드	Grace & Thanksgiving	Anna Laura Page	송재월			
III부	아멘관현악단	There's a song in the air	S. Pethel	임범창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문재오	9-12	이사	박이선/김영은	박순미	16교구	도르가	송지윤	이마나	4-13	대학부	도지혜
고명심	9-12	한나	박이선/김영은	윤정필	16교구	빌립	송지윤	안화주	13교구	대학부	김은순/김경희
윤정구	7교구	엘리아	김수진/위성남/제영진	노혜진	6교구	도르가	김성수	백승희	16교구	고등부	박길희/최원석/유안순
김민경	13-9	에스더	곽대수/김수원	마승우	5교구	청년2부	최수정	백승연	16교구	중등부	박길희/최원석/유안순
김현옥	14교구	마리아	김예순/윤주형/김은희	민경우	6교구	빌립	송행희	백재연	16교구	초등부	박길희/최원석/유안순
백지현	16교구	안드레	박길희/최원석/유안순	변수민	6교구	도르가	송행희	윤자은	16교구	유아부	송지윤
노규원	13-16	보비	김은순/김경희	이루리	13교구	청년2부	본인	오노아	7교구	유아부	박이선/정수진
안영근	16교구	보비	박길희/최원석/유안순	이연진	5교구	대학부	백경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 앞면에서 계속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병무, 교육,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2-308호) ※ 전화 예약 010-5779-1329
11. 의료 상담 / 하인선(신경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 결 혼

1. 신랑 신찬울 군(3교구 신문식 집사 전희정 집사의 차남)과 오정현 양(오병도 최옥희 씨의 장녀) /
12월3일(토) 오후2시 서울교회

● 장례

- 1.故 김영자 집사(12교구 장덕 집사 모친 임인자 권사 시모) / 22일(화) 별세, 24일(목) 천국환송예배
- 1.故 윤종두(12교구 윤영미 성도 부친 김응수 집사 장인) / 24일(목) 별세, 26일(토) 발인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이라 이름하는 맥추절을 지키면서 처음 맺은 곡식과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를 지켰다. 우리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전히 햇곡식과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농부들의 피 땀흘린 수고와 자연의 재앙 속에서도 눈물겨운 고투를 해온 국민 모두의 노고를 물라서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그 분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는가. 빈손으로 세상에 온 나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것이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하게 될 것은 믿는 이라면 형편과 처지가 여의치 못하다 해도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반드시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며 나의 실패가 때로는 성공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아는 이는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과분한 대접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종윤 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유 지

교회에서 음식을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절 약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 일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성 수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